

인서울 최저 합격선 ‘216·212’ 전국 의대 276~292 분포 전망

9월 모의평가 분석

국어·수학·탐구 원점수 기준
의대 정원 축소·고3 증가 등 영향
“최상위권 학과 합격선 높아질 것”

지난 3일 치러진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서연고) 인문계열 최저 합격선은 259점, 자연계열은 266점으로 예측됐다.

전국 의대는 최고 292점에서 최저 276점까지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의대 정원 축소와 고3 학생 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7일 종로학원이 국어·수학·탐구 원점수 총 300점 기준(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I 50점, 탐구 II 50점)으로 분석한 결과, ‘인서울’ 최저 합격선은 인문계 216점, 자연계 212점으로 전망된다.

평균 점수 기준으로는 서연고 인문 261.5점, 자연 269.6점, 인서울 인문 219.5점, 자연 221.4점으로 나타났다. 서연고를 제외한 주요 10개 대학은 인문 254.8점, 자연 260.3점으로 분석됐다.

최저 점수 기준으로 서울대 인문은 260점, 자연 266점, 연세대와 고려대 인문 259점·자연 266점, 성균관대 인문 256점·자연 257점, 서강대 인문·자연 모두 257점으로 전망됐다.

인문계열 상위 학과는 서울대 경영대 학이 2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고려대 경영은 각각 260점, 성균관대 글로벌

〈주요 대학 별 정시 합격선(국수탐 원점수 기준)〉 /종로학원

구분	인문			자연		
	학과평균	최고학과	최저학과	학과평균	최고학과	최저학과
서울대	267.7	285	260	273.3	292	266
연세대	259.4	260	259	267.6	288	266
고려대	259.4	260	259	266.9	286	266
성균관대	257	259	256	265	286	257
서강대	257.4	259	256	260.9	266	257
한양대	256.1	259	255	262.4	286	257
중앙대	255.2	256	255	256.9	283	246
경희대	253.8	286(한의) 255	247	254.8	283	243

경영 259점, 서강대 경영학부 259점, 한양대 정책학과 257점, 중앙대 경영학부(글로벌금융) 256점, 경희대 경영학과 255점으로 예상됐다.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279점,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각각 269점,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266점,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261점,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 266점, 중앙대 소프트웨어학부 257점, 경희대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251점 등으로 예측됐다.

의대는 서울대 292점, 연세대 288점, 고려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의대가 286점으로 집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92점에서 276점까지 합격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치대는 283~272점, 한의대 276~269점, 약대 279~266점, 서연고 이공계는 281~266점으로 분석됐다.

2026학년도 의대·이공계 최상위권 학과 합격선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모집 정원이 축소된 반면,

고3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4만 7000명 늘어나면서 내신 상위권 학생 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권 의대는 지방 내신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집정원은 줄었지만,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확대 이전인 2024학년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대 전체 지원자 수는 감소하더라도 수시 전체 지원자 수는 고3 증가 효과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수시 평균 경쟁률은 서울권 18.74대 1, 경인권 12.99대 1, 지방권 5.99대 1이었으며, 올해 역시 서울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정원 축소와 고3 학생 수 증가가 맞물리면 최상위권 학과 합격선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수험생들은 수시와 정시를 병행해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교육부, ‘입시비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연말까지 신고 접수… “철저히 조사”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또는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 비



리 신고센터로 비리 주제,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입시 비리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

시각장애 학생들 체육활동 활성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시각장애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맞춤형 교재, 전문 지도, 무대 경험을 패키지로 지원해 시각장애 학생들이 체육 활동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빛맹학교 학생 7명에게 맞춤형 점자 교본을 제작해 제공하

고, 한국체육대학교의 전문 품새 지도를 연계했다.

오는 8일 한빛맹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개학식에서는 방송인 이동우의 사회로 품새 발표 무대가 선보여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점자 교본은 국기원 태권도 품새 실기 교수설성관 교수의 자문을 받아 단순한 동작 학습을 넘어, 손끝으로 읽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며 태권도를 익힐 수 있도록 특별 제작돼 의미를 더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웅진군민의 집’ 본격 운영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날이 잦은 웅진군 주민들을 위한 복합복지시설이 인천 연안부두에 문을 열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웅진군은 지난 5일 ‘웅진군민의 집’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웅진군민의 집은 연간 평균 22%에 달하는 여객선 결항률로 인해 육지 체류에 어려움을 겪던 웅진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성됐다.

인천시와 웅진군은 시비 20억 원과 군비 23억 원 등 총 43억 원을 투입해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중구 향동7가 옛 센트로호텔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탈바꿈시켰다. 건물 연면적은 1,158㎡에 이르며, 총 28실의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됐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양천캠퍼스’ 개관

데이터분석가 등 3개 과정 운영
연내 구로·중랑 캠퍼스 추가 개관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1차지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완성을 앞두고, 서남권 청년들의 AI·디지털 인재 성장을 책임질 양천캠퍼스를 연다.

서울시는 8일 청년취업사관학교 23번째 캠퍼스인 양천캠퍼스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조성한 청년 인재 양성기관으로,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 22개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누적 취업률 75%의 성과를 내고 있다.

새롭게 문을 연 양천캠퍼스는 연면적 794.53㎡ 규모로, 3개의 강의실과 커뮤니티 라운지, 팀 프로젝트 공간, 휴식공간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지하



청년취업사관학교 양천캠퍼스. /서울시

철·버스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양천보건소 건물에 위치해 구청·보건소·경찰서 등 관공서 단지과 양천공원, 상가단지 등 교육생에게 편리한 주변 환경을 제공한다.

강의실에는 AI·디지털 교육에 최적화된 PC가 구비돼 있다.

양천캠퍼스에서는 12월까지 기업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AI 기획 및 데이터분석가 과정

▲글로벌커머스MD/BM 양성과정을 운영, 사전 모집을 거쳐 선발된 75명의 청년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시는 양천캠퍼스 개관 이후 연내 구로·중랑 캠퍼스를 추가 개관해 ‘1차지구 1 캠퍼스’ 체계를 완성하고, 청년 AI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또한, 일자리 매칭데이를 통해 청년 선호도가 높은 신산업 분야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출범 4년 만에 누적 취업률 75%라는 성과를 거두며,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AI·디지털 인재 양성 모델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양천캠퍼스 개관과 매칭데이 개최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 취업 기회를 더욱 넓히고, 교육부터 채용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美 언론 “韓 기업 공장 이민단속으로 한미관계 시험대”
▲“곰팡이·벌레 득실”…한국인 대거 구금 美 ‘폭스톤 수용소’, 열악 실태

▲“트럼프, 10월 APEC 정상회의 방한 준비…“경제 협력 논의 초점”
▲미국 파월볼, ‘2조 4800억원’ 잭팟 터졌다…텍사스·미주리서 동시 당첨



▲러, 침공 후 최초 우크라이나 정부청사 직접 타격… 2명 사망·15명 부상 /사진 뉴스시스
▲트럼프 행정명령 발동… 미국방부 홈페이지 ‘전쟁부’로 신속 개편